

신세대 · 손세대

이 강 부

((주)상아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정보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개념과 접근방법, TOOL등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전산환경의 기술적인 기반구성은 물론이고 개발방법 및 구축방법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가능성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능성등은 이른바 OPEN환경과 분산처리방식의 확산에 따라서 데이타통신,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개발등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EDI, CALS/EC, ERP, DATA WAREHOUSE, CLIENT/SERVER, INTERNET, INTRANET, MULTI-MEDIA, GROUPWARE등 10여년 전에는 용어조차 없었던 개념들이 새로운 전산환경과, 정보산업의 새로운 기회로서 닦아오고 있으며 우리는 2000년이 되기 이전에 얼마나 더 많은 개념 및 용어들의 실체 및 허상과 씨름해야 될지 모른다.

이러한 선택가능성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아주 발

전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결정해야하는 정보처리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과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의 순차적 자원투입증대 이외의 선택이 없었던 시절보다 훨씬 곤혹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새로운 개념과 구축방법론이 의사결정자가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REFERENCE가 없을 수도 있고 확실히 논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증이 덜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고민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여기에 덧붙여 더욱 심각한 것은 최고 경영자나 비전문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전산분야 신세대들까지 합세하여 C/S환경, UNIX, RDBMS등이 채용되지 않았으면 구형시스템이기 때문에 업무의 형태나 시스템의 운영효율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바꾸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입요원의 경우 MAINFRAME환경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것 자체에 저항하는등 기반기술의 편가르기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용어와 개념의 채택이 업무의 성질과 본질을 압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지않아도 사회적, 도덕적 규범으로서 흑백논리의 폐단이 한 둘이 아닌것이 세상사인데 하물며 시스템 구축방법론에 있어서까지 세대를 구분하고 모든것을 몇개의 용어로

피아를 구별하는 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C/S등의 용어로 표현되는 시스템들은 신세대이고 MAINFRAME, TPS, MIS등으로 표현되는 시스템들은 원세대의 몫이라는 등의 분류는 정보화 추진에 상당한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스템은 그 응용 분야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환경과 구축방법론이 결정되어야 하며 계절에 따라 바뀌는 새로운 유행처럼 요소기술들을 무리하게 우겨넣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하나의 요소기술과 개념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구사되어야 할 조화의 한 요소인 것이다. 결국 시스템은 흥정 (TRADE OFF)이고 선택의 개념이며 정도의 문제이지 하나의 개념과 요소기술이 다른 개념과 요소기술에 대치되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구나 경험상으로 보면 십수년간 H/W, S/W운영환경은 요소기술의 발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뀌긴 했으나 응용분야의 커다란 흐름은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 바뀌기 보다는 추가되었다고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느 S/W회사 사장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공급업자 선정시 「후진국은 부패한 관리와 뇌물에 의해서 결정되며 중진국은 몇개의 새로운 용어와 어느 분야엔 누구누구가 최고라

는 등의 몇명의 SUPER STAR에 의해서 결정되고 선진국은 실적과 기술력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한다. 우리가 중진국에서 하루빨리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무슨무슨 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구형 시스템이라는 등의 단순비교논리와 어느 분야에는 무슨박사가 국내 최고 권위자이니 그에게 자문하면 완벽하다는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의 성격과 필요요소 기술의 정확한 이해, 기술채용에 따른 효율성과 위험성등이 사려깊게 검토되고 검증되지 아니하고 해당업무를 가지고 한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외부 도사(?)의 훈수와 몇개의 최신 용어와 개념만으로 무장한채 본질이 감추어진 상태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새로운 개념과 기술의 발전은 정보처리 전문가로서는 더없이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IT의 발전은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즈음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IT에 대하여 수용하고 현재의 IT와의 영역조정을 해놓지 못할경우 우리는 CEO로부터, 중간관리자로부터 그리고 최종고객으로부터 「원세대」라는 이름으로 매도될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현실적 자기무장이 되어 있지 않을경우 우리는 「새것=좋은것」 「새로운 개념=최신경향=최선」 「진취적사고」라는 찬사와 함께

RISK에 동참치 않으면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자 하는 부하와, 최신 시스템을 갖추길 원하는 최고 경영자의 격려에 밀려 진지한 검토나 항변없이 커다란 흐름쪽으로 밀려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된 시스템의 구성에 따르는 수많은 문제점의 해결과 고민은 CIO의 몫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맞으면서 새로운 IT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하루아침에 「선세대」로 전락하여서는 아니되며 더욱이 선세대 · 신세대의 세대구분적 흑백논리가 시스템 구축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정확히 인식하여 과거의 오랜 경험에 새로운 신세대 IT의 접목을 이루어 선세대가 아닌 최신세대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